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방안 공청회(1차) 자료집

일시 | 2014. 10. 20. (월) 15:00~18:00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434호)

주최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방안 공청회(1차) 자료집

수능 CAT 2014-29-1

발행일 2014년 10월 20일

발행인 김 성 훈

발행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 소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전 화 (02)3704-3704

팩 스 (02)730-7487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인쇄업체 (주)범신사(02-720-9786)

I S B N 978-89-6687-891-8 94370

978-89-6687-890-1 94370 (전3권)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발표자와 토론자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본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현행 수능 영어영역의 점수 체제는 개인의 성적이 전체 응시 집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대평가 방식입니다. 시험에서의 상대적 서열이 중요하다 보니, 학교 영어 수업도 문제풀이 등 시험 준비 위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과도한 학습·입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토론회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도 8월 말에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취지와 도입 방안 등을 점검하고, 절대평가 점수 체제를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공청회가 수능 및 영어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교육부장관 황 우 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김 성 훈



## ■ 1차 공청회 세부 일정

시 간	내용
14:30~15:00	등록
15:00~15:10	개회식 • 국민의례 • 인사말씀 :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15:10~15:40	<주제 발표 1>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안 모색 :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수)
15:40~16:00	<주제 발표 2>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점수체제 탐색 : 박찬호 (계명대학교 교수)
16:00~16:50	<지정 토론> • 좌 장 : 김진완 (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최은경 (상계고등학교 교사) 김신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전 한국교육평가학회장) 권오현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이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응용언어학회장)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16:50~17:00	휴식
17:00~18:00	자유토론



# CONTENTS

---

---

<b>주제 발표 1</b>	<b>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안 모색</b>	<b>1</b>
	• 발표자 :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수)	
<b>주제 발표 2</b>	<b>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점수체제 탐색</b>	<b>25</b>
	• 발표자 : 박찬호 (계명대학교 교수)	
<hr/>		
<b>토론 1</b>	<b>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에 대한 토론</b>	<b>39</b>
	• 토론자 : 최은경 (상계고등학교 교사)	
<b>토론 2</b>	<b>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에 대한 토론</b>	<b>49</b>
	• 토론자 : 김신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전 한국교육평가학회장)	
<b>토론 3</b>	<b>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추진에 대하여</b>	<b>53</b>
	• 토론자 : 권오현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b>토론 4</b>	<b>본질적인 교육목표에 따른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위해</b>	<b>61</b>
	• 토론자 : 이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응용언어학회장)	
<b>토론 5</b>	<b>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은 대입 전형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b>	<b>67</b>
	• 토론자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주제 발표 1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안 모색

강 태 중 / 중앙대학교 교수



## 주제 발표 1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안 모색

강 태 중 / 중앙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에서 ‘수능’이라 쓴다)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 및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으나(교육부 설명자료, 2014년 8월 27일),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짐작이다. 적어도 언론들은 적용시기가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 글은 교육부의 계획과 이 계획을 둘러싼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계획이 어떤 의미와 가능성을 가지는지 살피는데, 교육부 계획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참조하며 논의하게 될 것이다. 우선, 정부에 의해 촉발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논의의 맥락을 정리하고, 아직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로 표현된 교육부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질 수 있는지(어떤 대안으로 풀 수 있는지) 추론한다. 이렇게 해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 논의의 초점을 명료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리를 바탕으로, 이어서 교육부 계획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떤 난관에 부딪칠지 짐작해 본다. 이 짐작을 하는 데서는 이제까지 토론회나 언론 오피니언 란 등을 통해 나온 여러 의견들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검토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교육부 계획이 실지로 어떤 정책으로 풀려 나가야 할지 정리하게 될 것이다.

## Ⅱ. ‘수능 영어 절대평가’ 논의의 맥락

금년에 이루어진 세간의 논의만을 두고 보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논란은 2월 17일 중앙일보 보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과목을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잉 영어교육을 요구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대입 제도를 그대로 두고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에 따라 줄을 세우는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 일정 성취수준을 보이는 수험생은 모두 같은 등급을 받는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표기되지 않는다. ...

이런 보도에 대하여 교육부는 “현재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수능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포함한 입시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교육부 해명자료, 2014년 2월 17일). 교육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나온 것은 8월 27일 교육부장관의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였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큰 방향에서 잡고 있다. ... 2017학년도부터 하느냐 2018학년도부터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을 실무선에서 마지막 단계로 전문가들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며,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를 지키겠다.

과도한 사교육 시장과 수십 년에 걸친 영어 투자가 무슨 결실을 냈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국민이 이 정도 해야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정해 영어 교육을 하면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다. 3년 예고를 하더라도 덜컥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면 충격이 될 수 있어 중간단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절대평가로) 연착륙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연합뉴스, 2014년 8월 27일).

장관의 이런 발언을 바탕으로, 언론은 2018학년도 수능에서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될 것으로 확신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교육부 실무선에서도 ‘설명자료’를 통해 “영어 절대평가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 중”임을 확인했고,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충격 완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도 “현행 상대평가 체제에서의 과도한 수험 준비 및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설명자료, 2014년 8월 27일).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 머릿말에 적은 것처럼, 교육부는 8월 27일 ‘설명자료’에서 도입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해 놓은 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통해 진척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4월과 5월에 ‘정책포럼’의 형식으로 수능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다. 이 포럼들에서는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나왔고, 절대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도 제안돼 논의되었다. 여기 논의들을 통하여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정책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의 윤곽과 이들에 대한 관련 인사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안이 공식화(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방안을 검토하려면 (그리고 검토를 통해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기여하려면), 그 정책이 어떤 대안으로 구성될지 먼저 짐작해보아야 할 것이다. 짐작으로나마 정책이 취할 진로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시작된 찬반 논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내놓는 사람마다 정책과 관련해서 나름의 가상 대안을 전제한다면, 전제가(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짐작이) 다른 의견들을 같은 반상(盤上)에 올려 대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미래를 가늠해 보려면, 먼저 수능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려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모를 취할 수 있을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 Ⅲ.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의 예상

수능 영어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말은 자명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 가능한 뜻을 함축하고 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여러 가능한 뜻(대안)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려할 게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때 고려는 물론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어디서 어디까지의 의미 폭(대안의 범위)을 지닐 수 있는지 정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의 실제 의미는 크게 두 사안에서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절대평가’라는 말(또는 대안)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보완 조치들(특히 학교에서의 평가나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 함께 취해질 조치들)을 ‘절대평가’의 제도화에 동반시킬 것이냐는 측면이다. 교육부가 방안 확정을 위해 고심하고 있을 사안들도 사실 이 두 측면의 문제로 모아질 것이다. 방안 결정의 핵심은 두 측면에서 어떤 대안을 채택하느냐에 있다.

교육부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그 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우선 두 측면에서 유력하게 고려할 수 있는 대안들에 어떤 것이 있을지 살피고, 그 대안들의 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요긴할 것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방안 확정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의 관건들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보일 반응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물론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침을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수능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전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도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침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방침의 가치와 필요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적극적인 측면의 논의는 사실 앞에서 정지(整地)한 ‘소극적인’ 논의 과정에 선행해야 할 것이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왜 해야 하는지 논의함이 없이는, 위에서 말 한 ‘두 측면’(‘절대평가’의 제도화와 그 제도화 관련 보완 조치)을 논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절대평가를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모종의 답을 가져야 비로소 그 답을 바탕으로 두 측면의 대안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저울질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적극적인 측면의 논의는 다음 장으로 미룬다.

이 장(章)에서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침을 밝힌 교육부가 실지로 어떤 대안들을 내놓을지 예상할 수 있는 후보 대안들을 추정하고 논의한다. 교육부의 공식적인 발표나 세간의 다양한 논란들을 바탕으로 정책의 양상을 미리 짐작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개연적이거나 미리 그려본 정책의 그림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정책이 어디로 가야할지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 1. ‘절대평가’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절대평가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상대평가’에 대비되어 자명한 뜻을 지니는 듯이 쓰이지만, 그 뜻은 사실 모호하여 학구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쓰기에는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맥락에서는 그 말의 평이함 때문인지 꾸준히 애용되어 왔다. 누적되어 온 용례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모호함은 여전하여, 쓰일 때마다 그 의미는 조작적으로(실제 수행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서도 형편은 마찬가지이다.

‘절대평가’는 흔히 소극적인 방식으로 정의된다. ‘상대평가’가 아닌(그것에 대비되는) 평가 양식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 얘기하면, ‘상대평가’는 우리나라 학교 사태에 만연해 있는 평가 양식이다. 대체로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도 순위(성취도 분포상의 ‘상대적’ 위치)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이 만연한 ‘상대평가’와 대조되는 것이 바로 ‘절대평가’라는 것이다. 절대평가에서는 ‘상대적’ 기준이 아닌 ‘절대적’ 기준을 채택한다는 뜻이다.

‘절대평가’라는 말이 모호한 것은 바로 ‘절대적 기준’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료하게 지시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sup>1)</sup>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의미도 그 절대평가를 위한 기준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명히 드러내 주어야 명료해질 수 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어떤 ‘절대’ 기준을 채택하게 될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지는 않다. “국민이 이 정도 해야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정해” 방안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던 교육부장관의 발언이 개연적인 짐작을 하게는 하지만, 간담회에서의 일반적인 발언을 근거로 정책 대안을 짐작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발언의 취지는 “영어학자나 전문가로서(필요한) 영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능 영어영역 평가 기준은 어디에서 와야 하는가? 서로 중첩되는 점이 없지 않지만, 세 가지 방향에서 그 기준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수준, ②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수준, 그리고 ③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교육을 마치더라도 일상적으로 영어 소통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수준 등을 규정하는 방향이 그것이다.

첫 번째 방향은 수능 영어영역이 영어의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수궁이 간다. 수능 결과는 대학에서의 수학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1)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절대평가’는 ‘준거참조 평가’(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또는 ‘표준기반 평가’(standard-based evaluation)라 불린다. 성취를 평가하는 데 상대적 서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목표)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해진 준거나 표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러나 이런 방향의 수능은 수능의 명목적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대학의 교육과정을 하나의 동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정할 때나 가능하다. 수능이 진정하게 대학수학능력을 재는 시험일 수 있을지, 또 대학에 따라 다르기 마련일 다양한 수학 요건을 어떻게 조율하여 통일된 평가 기준으로 수렴시킬 수 있을지 짐작해 보면, 절대평가의 기준을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능력 수준’에서 끌어내는 작업이 실지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두 번째 방향은 수능을 시행하는 현재 방침이나 수능 개선이 꾸준히 요구되어 온 배경(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을 줄이려는 취지)에 비추어 쉽게 수긍할 수 있다. 현재 수능 영어영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특정한 교과에 국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교과들의 교육과정 목표들을 수능에서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고려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수능 준비 위주일 수밖에 없는 학교 수업은 파행을 거듭하게 된다. 수능 개선으로 이런 파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결국 수능 영어영역이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의 표준(standards)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수능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 표준 역시 이미 설정되어 있을 터여서, 수능 영어영역의 기준을 실지로 규정하는 작업도 다른 두 방향에서보다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방향에서의 평가 기준 모색이 현실적이고 교육적일 수 있다.

마지막 방향은, 학교 영어 교육이 진부하고 고답적이게 유지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취하게 될 것이다. 영어 습득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만나면 발화되지 못하는 영어 현상을 수능을 통해서 타개해 볼 수 있으리라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세간의 즉흥적인 논설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사실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허술한 데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 평가에 주력해야 할지에 대해 이견이 많을 것이고, 그 목적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많은 제약을 받는(특히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조건인) 수능에서 실지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어로 순조롭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학교 교육과정 표준으로 해석해 내는 작업도 또한 만만찮은 부담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리하고 보면,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기준은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여겨진다. 대학에서의 교육과정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에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면, 영어에 관련된 대학수학능력도 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은 일상적인 의사소통 측면의 영어 교육 목표도 다른 측면의 목표들과 함께 당연히 포괄하고 있다. 수능 영어영역을 이 부분적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제한할 명분도 마땅하지 않다.



수능 영어영역 평가의 ‘절대’ 기준을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규정한다면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수능에는 어떻게 적용하게 될 것인가? 세간의 수능 영어 절대평가 논란은, 적어도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읽을 수 있는 한에서 보면, 이 질문을 짚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는 결국 응시자들의 성적(평가 결과)을 많지 않은 수의 등급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뜻하는 것이고, 이때 등급들은 특정 점수 구간을 압축 표시하는 대푯값에 다름 아닌 것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이외에 다른 ‘절대평가’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논의하고 있다. 사실 현재 수능과 같이 선다형 지필시험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서라면, ‘절대 기준’이 중국에는 성취 급간(등급)을 가르기 위한 점수(cut score)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절대 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이라는 것도 결국 결정된 급간 구분 점수를 구획점으로 삼아 위계적인 스펙트럼의 등급을 매기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수능 영어영역 평가를 좀 더 근본적으로 개혁할(예컨대 말하기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sup>2)</sup> 현재 논의들이 바탕에 깔고 있는 ‘절대평가’ 양식의 가정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평가 방안’을 구안하는 데 남아있는 쟁점은 결국 ① 몇 개 등급으로 성취도를 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② 그 만큼의 등급을 나누기 위한 구획 점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sup>3)</sup> ‘절대평가’의 기준을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두 쟁점을 해결하는 작업이 곧 영어과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①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한 정도는 몇 개 등급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② 목표 달성 정도(즉, 등급)를 구분하는 점수 구간은 어떻게 구획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과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과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전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를테면, 영어 교육자와 교육 전문가 그리고 이해 관련 인사 등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영어 숙달의 수준을 판정할 잣대는 결국 전문가와 관련 인사들의 안목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결정을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들의 판단에 맡길 때 예상할 수 있는 대안이 그리 많지는 않다. 등급 분할 점수를 결정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방법도 이론적으로 여럿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수능이 지닌 조건(극도의 고부담 시험이란 점, 제한된 출제 양식과 문항 수 등의 여

2) 이렇게 가정하는 게 현실적이라 여겨진다. 교육부 장관은 평가 양식 변화의 충격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연착륙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맥락에서 가까운 장래에 평가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수능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두 문제 외에 더 고려할 만한 사안이 없지는 않다. 문항 출제 절차나 문항 형식, 출제 방침의 발표 내용(상세 수준)이나 문항 자체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절대평가’ 견지에서 새롭게 고민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논란에서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 간과되고 있다.

건)을 감안하면 ‘고정 분할 방식’(각 등급을 가르는 점수를 사전에 정해 놓는 방식)을 근간으로 약간의 변형을 추구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먼저, 등급의 수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나 영국과 미국 등에서 교육과정 표준이나 성취 준거를 적용하는 평가에서 몇 개의 사례를 모아볼 수 있다(강태훈, 2014).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 대안들이다.

- 2개 등급: 합격(pass), 불합격(fail)
- 3개 등급: 상-중-하(high, mid, low; above average, average, below average)
- 4개 등급: 우수-보통-기초-기초 미달(advanced, proficient, basic, below basic; excellence, merit, achieved, not achieved)
- 5개 등급: 수-우-미-양-가(A-B-C-D-F; 5-4-3-2-1)
- 6개 등급: A-B-C-D-E-U(unqualified)

등급 구분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면허나 전문 자격 수여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합격과 불합격의 2개 등급이면 충분할 것이고, 교육 훈련의 목표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달성-미달의 이분 확인을 넘어 수월의 정도를 좀 더 구분하여 보려고 할 것이다. 성취(교육)의 준거나 목표(표준)에 근거한 평가(‘절대평가’)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상대적 비교나 전형(銓衡)에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변별력을 지닐 수 있을 만큼 등급 수를 더 늘리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등급 수를 15개(예컨대, 5개 상위 등급 × 3개 하위 등급)까지 늘리는 예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이른바 절대평가의 경계를 벗어나는 사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등급별로 요구되는 수행 수준(performance level descriptor)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 진술(‘절대 기준’, 즉 준거 또는 표준)에 비추어 수험자의 수행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평가하려는 ‘절대평가’의 취지를 고집한다면, 등급의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은 무리이다. 영어영역의 성취수준(등급) 수를 크게 늘리고, 그 만큼 세분된 각 등급들에 대해, 실제 평가(시험)에서 등급 간 성취 차이를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엄밀하게 수행 수준을 진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외국어 학습 성취를 평가하는 데 적용하기 위한 유럽 공동의 가이드라인(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은 A-B-C 세 등급(Basic, Independent, Proficient)을 우선 구획하고 이들을 각각 이분하는 틀로 6개 등급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외

국어교육위원회(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는 11개 등급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섯 수준(Distinguished, Superior, Advanced, Intermediate, Novice)을 먼저 구분한 후, 아래 세 등급(Advanced 이하)에 대해서는 다시 세 등급(high, mid, low)으로 세분하는 틀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많은 수의 등급을 구분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3~5개의 기본 등급을 구획하고 그것을 더(다분히 상대적으로) 세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순전하게 절대적인 기준을 규정하기보다는 절대 기준의 바탕 위에 상대적 변별의 범주를 가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리하고 보면,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안’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등급 수 대안은 4~5개 안과 9개 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수능이 전형자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성적(등급)이 변별력을 사실상 지니지 못 할 정도로 등급 수를(예컨대 2~3개 정도로)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등급 수를 크게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등급별 성취 표준(performance level descriptor, PLD)을 엄밀하게 작성해 낼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등급 수를 결정한다면 4~5개를 넘겨 채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절대평가 취지를 살린다면 등급 수는 많아야 5개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대입전형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 수능에서 영어영역의 변별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경우 대학들이 다른 대안을 강구할 사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점을 감안하면 등급의 수를 4~5개까지로 줄이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들이 있다. 수능 다른 영역의 등급 수(9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절대평가 취지가 다소 퇴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개 등급 안은 ‘가능한 대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파장을 경계하는 교육부의 조심스런 입장이나, 이전에 한국사 과목과 관련해 내려진 정책 결정 등을 감안하면, 9개 등급의 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앞에서 이미 인용한 대로, 교육부 장관은 “덜컥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해, ‘절대평가’ 취지에 철저하게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고, 2013년에 ‘절대평가’를 전제로 한국사를 새롭게 수능 과목으로 추가하면서 교육부가 채택한 대안은 9개 등급의 안이었다. 이번 영어영역의 경우에도 9개 등급 안이 여전히 유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에서 유력하게 고려할 여지가 있는 대안은 4~5개 등급 안과

9개 등급 안 정도가 될 것이다. 등급 수 결정은 ‘절대평가’라는 정책 지향을 얼마나 완고하게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9개 등급 대안을 채택한다면, 절대평가의 취지를 온전하게 관철 시키기보다 기존 수능의 상대평가(변별) 속성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과도적 절충을 시도하는 셈이 된다.

‘절대평가’에서 등급별로 분할 점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등급별로 어떤 성취 특징이 나타나야 하는지 기준을 기술하는 작업(performance level description)에서부터 그렇게 기술된 기준이 특정한 시험에서 어떤 점수로 정의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작업(standard setting)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양하지만,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바탕을 둔다는 점에서는 대안들이 공통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위해 이상적으로 대안을 모색한다면, 평가 기준을 작성하고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들을 가능한 한 많이 다양하게 동원하고, 그들이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능의 환경은 그렇게 이상적이고 다양한 대안을 무한하게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수능 시험 여건이 허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타협해야 할 것이다.

등급 분할 점수를 결정하는 접근 방식은 크게 ① 수험자 기반(examinee-centered)의 방식과 ② 시험 기반(test-centered)의 방식이 있다(Näsström and Nyström, 2008). 수험자 기반의 방법은, 수험자들을 시험 점수가 아닌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각 등급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시행한 후 각 등급에 속한 수험자들이 얻은 점수를 분석하여 분할 점수를 결정하는 것이고, 시험 기반의 방법은 각 등급에 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상정되는 수험생들이 각 시험 문항에서 어떤 경향의 응답을 보일지 판단한 결과를 종합하여 분할 점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두 방식은 물론 혼합 활용될 수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성취평가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증적인 검토나 분석 과정 없이 관례적으로 정해진 점수를 분할 점수로 적용하기도 한다. 흔히 ‘고정 분할 점수’라고 불리는 이 점수들은 90-80-70-60 등으로, 명시된 수행 표준에 관련 지움 없이 타성적으로 채택되어 왔다. 만점(100)을 완전 학습 수준으로 상정할 경우에, 그 정점 숙달 수준에서 일정 간격으로 멀어지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내려 매기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이거나 실증적인 기반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전통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이라고 치부해 버릴 것만은 아니다. 각 분할 점수가 등급별로 수행 수준(performance level)에 상응하도록 문

항 출제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위에서 말한 ‘시험 기반의 방식’의 한 변형(즉, 특정 등급 수준의 수험생들이 문항별로 보일 응답 경향을 예측하며 출제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논의는 대체로 ‘고정 분할 점수의 방식’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듯이 이루어져 왔다.<sup>4)</sup> 다만 측정 전문가들은 ‘시험 기반의 방식’에 속하는 Angoff 방법이나 Bookmark 방법 등이 대안이 될 만하다고 이야기 해 왔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수능 여건에서는 이 두 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된 절차로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강태훈, 2014; 박찬호, 2014).

이상에서 언급한 분할 점수 결정 방식들 가운데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위해 절대 고려하지 못할 방식은 없을 것이다. 수능의 현실 여건을 얼마나 유연하게 활용할 것이며, ‘절대평가’의 취지를 얼마나 철저히贯彻할 것인지에 따라, 채택하게 되는 방법과 그 방법을 운용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수험자 기반의 방식을 채택하려면, 교사들이 수행 수준의 기술(PLD)에 따라 예비 수험자들을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안목이 교사들에게 필요할 수 있고, 수능과 동등화될 수 있는 모의고사 등을 통하여 등급 분류된 학생들의 점수를 분석하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시험 기반의 방식의 경우에도, 모의고사 등을 통하여 그 방식을 예비적으로 활용하여 현실적인 절차를 점검하고, 본 시험 시행 후에도 문항별 반응 경향 등을 활용하며 분할 점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채점 시간을 늘리고 새로운 관행도 세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더욱 관건이 될 것은, 어느 방식을 채택하건, 수능과 같이 이해가 크게 걸린 시험에서 등급 분할의 점수를 전문가들이 주관적으로 결정하도록 용인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냐는 문제일지 모른다. ‘절대평가’의 요체는 전문적 판단에 있는 바, 이 기본 속성을 수궁하도록 기존의 평가 문화(‘객관적인’ 점수의 신화)를 바꾸어 가려는 정책의지가 대안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 2. 어떤 보완 조치들을 예상할 수 있는가?

수능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따라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교육부가 이런 예상 없이 정책을 추진할 리는 없다. 부작용을 가능한 한 줄이려는 대

4) 이런 예단에는 사실 근거가 없지 않다.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2014년 9월 2일), 새롭게 도입된 한국사 영역의 ‘절대평가’에서는 고정 분할 점수 양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수능의 역사와 관행을 감안하면, 시험 때마다 등급 분할 점수가 달라지고 또 그 변동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일어난다는(절대평가에 충실하려면 이런 과정이 불가피한) 점을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책들을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과 함께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데 그쳐 있는 교육부의 발표나 설명만으로는 어떤 보완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비교적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2월 17일 중앙일보가 교육부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처음 보도했을 때, ‘교육부 관계자’는 아래와 같이 부연한 것으로 인용됐다.

수능 영어의 변별력이 약해지면 대학들이 영어 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나설 수 있고 수학 등 다른 과목 사교육이 커질 수도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을 설계하면서 영어 교육과정과 평가방식,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중앙일보 2014년 2월 17일).

위에 언급한 중앙일보 보도(“수능 영어 절대평가 검토”)에 대한 해명자료에서도, 교육부가 당 시에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한 수능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수능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고립적인 방안이 아니라 전초 방안일 수도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어떤 조치들을 취할지 아직 발표를 기다려보아야 하는 시점에서 그 조치들의 윤곽을 사전에 헤아려 보려면, 방안 도입 발표에 대해 이제까지 이루어진 논란을 살펴보는 게 유익할 것이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논란에서는 그 방안의 미래를 점치며 성패 가능성의 근거들을 들고 있는 바, 여기에 들어 있는 비판과 충고들을 교육부가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론(世論)이 정리해 주는 것으로,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안’이 앞으로 만나게 될 난제와 장애 그리고 역풍 등은, 교육부가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 잠재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교육부가 취할 가능성이 있는 보완 조치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영어 수능 절대평가’ 문제를 논란하는 맥락에서 제기해 온 문제는 크게 세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사교육’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점, ② 영어 학습의 동기가 위축된다는 점, 그리고 ③ 현재 대입전형 환경에서 ‘절대평가’ 취지를 관철하는 것이 무리라는 점 등이다. 교육부가 보완조치를 강구한다면 최소한 이런 지적에 대한 대응책은 모색할 것이다. 세 범주의 지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며, 각각에 대해 어떤 대응 조치를 예상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자.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영어 사교육 문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아마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이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과 연계되어 나왔다고 여길 수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부 장관도 방안 도입 방침을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이런 배경에서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안’에 대한 일차적인 비판은 사교육에 관련되어 있다. 절대평가로 사교육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 사교육을 줄일 수 없다는 근거는 두 측면에서 나온다. 하나는 사교육이 다른 영역으로(특히 수학, 국어 등으로) 옮겨 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능이 아닌 대학별 전형 과정에서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앞의 비판은 이른바 풍선효과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이다. 절대평가 결과로 대입전형에서 수능 영어의 영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그래서 수능 영어에 투자할 사교육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 효과는 풍선의 한 면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다른 면에서 그만큼 더 팽창하는 효과를 낼 뿐이라는 주장이다. 뒤의 비판은 대학들의 대응이 다른 사교육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능이 필요한 변별을 해주지 않으면 대학들이 대학별고사(영어 면접 등 포함)를 동원하여 자체적인 변별에 나설 텐데, 이 새로운 시험 준비를 위해 사교육은 여전하거나 어쩌면 더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능 영어의 영향력이 줄어든 자리를 어떤 전형 요소로 채우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지를 궁리하는 방향에서 보완책을 찾게 될 것이다. 짐작컨대, 교육부가 단순히 영어가 아닌 다른 영역(특히 수학과 국어)이 비중을 키워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고, 대학별고사가 무질서하게 행해지도록 방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교육부가 이제까지 대입전형의 기초를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능 영어 변별력이 약해진 점을 보완하는 대책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시하는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영어 공부의 동기를 꺾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장관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교육부가 ‘절대평가’ 방안을 도입하려는 일차적인 취지는 “영어 교육 정상화”에 있다고 한다. 이때 ‘정상화’란 영어 교육이 수능 준비에 매달리는 사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수능이 영어 공부의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수능 준비 공부를 한다더라도 영어 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끌겠다는 취지이다. 이런 취지대로라면, 영어 동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학교

의 영어 수업을 ‘정상적으로’ 바꾸어 가려는 대안들로 대응할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 등의 영역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고, 또 이들 영역에 대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결과가 대입전형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도록 만들어, 읽기와 듣기 등에 치우친 수능의 평가를 보완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방향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시하려는 기존의(위에서도 언급한) 취지와도 일관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정책의 결과로 학교 영어 교육이 수능의 족쇄에서 어느 정도 풀려날 수 있다면, 수능이 부여해 왔던 영어 학습 동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바람직한 동기가 새롭게 영어 교육의 활기를 돋울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다. 수능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행위나 EBS 교재의 지문에 익숙해지기 위해 심지어 지문 번역문을 암기하는 식의 행위들은 사라지고, 말하기와 쓰기 등이 활동의 중심이 되는 영어 진수의 학습 행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추구한다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학습 동기 저하나 영어 실력 하락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은 초점을 잃은 것이 된다.

현재의 대입 전형체제에서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하는 방안 자체가 여러 측면에서 뼈걱거림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은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대학 쪽에서는 다른 영역과 점수 체제가 다르면 합산하는 등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적은 수의 수능 영역 점수만 반영하던 대학들이 영어영역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생기면서 전형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도 말한다. 학생들은 수학이 당락의 관건이 될 터여서(영어에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문과생’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도 말한다. 평가 전문가들은 ‘절대평가’가 주관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블투명성’ 등의 속성을 지녔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용인할지 회의한다.

대학 쪽이나 학생들의 지적은 현재 대입전형 체제에 다른 변화는 없고 오직 수능 영어영역에서만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위에서 짐작했던 보완책들을 강구한다면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평가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터인데, 여기에서 교육부는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한도에서 ‘절대평가’ 방안에 타협할 것이라는 뜻이다.

교육부가 2017학년도 수능에서 한국사 영역의 절대평가를 위해 채택한 대안에 비추어 보면, 이런 짐작에 수긍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여기서 이른바 고정 분할 점수의 방식의 9등급 체제를 채택하였는데, 이 대안은 ‘절대평가’의 취지를 제한되게 관철시키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절대평가 취지를 관철하려 할 때에는 사회적인 용인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절대평가’의 전지에서는 등급의 수를 많게 잡기가 곤란한데도 다른 영역에서 적용하고 있는(다분히 ‘상대적인’) 등급 수인 9등급의 안을 채택했다. 고정 분할 점수 방식도 여러 한계와 난점(분할 점수가 특정한 숙달의 지표가 될 수 없거나, 해마다 등급별 분포가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회적으로 익숙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채택했다. 이런 판단이 영어 경우에도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인’ 타협은 모든 정책 과정에서 불가피하다. 그러나 타협이 정책 기본 취지 자체를 약화시켜서 관련된 다른 노력들의 가능성을 훼손하는 데 이르면, 결국 정책 자체의 실패를 자초하게 된다. 이 점을 경계하기 위한 정책 균형이 ‘영어 수능 절대평가 방안’에서 어떻게 유지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물고 올 파장을 다스리기 위한 보완책들과 함께(사실은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사안은 ‘장기적인 수능체제 개편’ 문제이다. 수능체제 개편은 당연히 수능 영어 정책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제이다. 그러나 이 개편이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수능 영어 정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관련된다. 교육부가 수능체제 개편을 장기적으로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머지않아 수능체제에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방안은 당연히 그 개편에 연계되어야 한다. 연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영어 ‘절대평가’의 의의가 매우 옹색해질 것이다. 수능체제 개편은 영어 ‘절대평가’의 연장이며 확장인 구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영어 ‘절대평가’에서 수능체제 개편까지, 일관되게,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소모적인 경쟁 투자를 무용하게 만들려는 구도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가 어떤 안을 만들어낼지 아직 짐작하기에 이르지만, 이 개편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영어 절대평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기로나 제도로 밀접히 맞물린다는 점에서, 수능체제 개편안 논의는 수능 영어 문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V.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를 위한 제언

앞에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논란이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고, 교육부의 정책 방안은 어떤 양상을 보일지 정리했다. 이 정리를 바탕으로 이 장(章)에서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이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지 논의하면서 바르다고 판단되는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1.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시도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알려진 것처럼, 대통령이나 장관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등의 발언들이 그렇게 짐작할 만하게 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짐작하는 게 무리가 아니고, 또 설령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의제로 떠 오른 이상 사교육 문제에만 국한해서 그 가치를 논의할 수는 없다. 영어 교육(더 나아가 학교교육 전반)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할 방안을 단순히 사교육 문제에 효용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추진한다면, 그런 방안은 ‘교육’ 정책에 값할 수 없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은 사교육에 우선해서 영어 교육 자체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써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도 이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근본 취지가 사교육 문제 해결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영어 교육 정상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 것이다(연합뉴스, 2014년 8월 27일).

‘절대평가’를 통해 극복해야 할 영어 교육의 ‘비정상성’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수능이 ‘상대평가’이며 고부담이어서 초래되는 문제만 하나의 예시로 간략하게 살펴본다. 아래 인용하는 글은 소위 수능 영어 전문가가 2015학년도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충고이다.

‘쉬운 수능시험 압도적인 EBS 연계’의 정책은 영어 시험에서 수험생의 Class의 경계를 없애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뛰어난 최상위권 학생들은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 되다 보니 평이하게 출제되는 비연계가 아닌 1100개에 달하는 EBS 연계에서 혹시나 실수 하지 않기 위해 EBS 연계 지문 정리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

반면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에게는 EBS 지문이라도 잘 정리하면 ‘완전한 득점’이 가능한 ‘쉬운 수능 경기’에서 확실한 점수 확보원이 되기 때문에 또한 EBS 연계지문 정리에 총력을 다 할 수밖에 없고 또 다해야 한다(내일신문, 2014년 10월 2일. 원문 그대로 인용).

위와 같은 충고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충고는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런 충고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이 그 결과로 어떤 성과를 얻을지 상상해 보자. 수능에서 만점을 받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충고가 유효할 수 있는 수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을지 자문해 보자.

위와 같은 충고가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만큼 우리 사회의 영어 교육과 평가 인식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선진국에서 교사가 이런 충고를 한다면 윤리 강령을 매우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sup>5)</sup>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능한 교사의 징표가 되고 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이런 ‘비정상성’을 지양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를 지녀야 한다. 이런 방향의 의미를 지키기 위한 정책에 물론 ‘사교육 문제’가 따라 올 것이다. ‘풍선효과’ 같은 현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이 ‘정상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정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사교육’의 부작용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하겠지만, 그런 부작용을 이유로 ‘교육적인’ 대안 선택을 포기해선 안 된다.

## 2. ‘절대평가’의 대안

앞 장에서 짐작한 대로라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고정 분할 점수 방식’의 9등급 체제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우선 2017학년도 수능을 위해 결정한 한국사의 선례가 그런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방식(좀 더 ‘절대평가’ 취지를 살리는 방식)을 채택하려면 ‘사회적인 통념’과 싸워야 할 터이기 때문에, 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수능과 같은 시험을 운영하는 데는 교육평가와 측정 분야에서 개발 축적된 다양한 이론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활용의 결과로 시험의 타당도나 실용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한국에도 그런 이론과 기술에 대한 전문 역량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런 역량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활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납득하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용인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단에서, 그런 전문 역량(이론과 기술)의 활용을 지레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포기해 버리지 않고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을 빌린다면 절대평가의 다른 대안들을 채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통념에 근거한 사회적인 논란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전문적인 견지에서 타당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육 발전에 이롭다. 통념을 제거하기보다 그것에 타협하는 ‘정책적인’ 결정이 과연 현명한지, 그리고 그런 ‘우민(愚民)의 인식’을 계속 방기하고 재생산해야 할지 깊이 성찰할 때가 되었다.

5) 예컨대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 수업 행위로 규정한다(Moore, 1993). 수업 목표를 시험 준비에 두는 것, 시험에 출제되는 문항과 비슷한 문항들을 가지고 반복 풀이 연습을 하는 것, 기출 문제를 보여주는 것, 시험 대비 숙제를 내는 것 등.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위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만큼, 학교 교육에 대한 우리 인식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고정 분할 점수 방식’의 9등급 체제가 ‘절대평가’ 양식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려는 견지에서 다른 대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설사 고정 분할의 9등급 대안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절대평가’ 취지를 조금이라도 더 관철시키려는 입장에 선다면, 분할 점수 확정이나 그 분할 점수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질 문항 출제 등의 작업에 좀 더 엄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 3.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에 병행되어야 할 보완책들의 성격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은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나 사교육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갈 가능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보완책을 당연히 함께 강구해야 한다. 보완책들의 지원 아래에서 비로소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보완책을 찾아 모두 나선다면 한없이 교육 현실을 뒤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면적이고 철저한 모색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완책들이 견지해야 할 공통의 원칙을 확고하게 잡는 일이다. 여러 보완책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강구되어 때로는 서로 노력과 효과를 상쇄하는 사태가 초래되어선 안 될 것이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과 함께 보완책들이 추구해야 할 원칙은 ‘상대적인’ 평가(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인’ 경쟁 그리고 ‘변별’의 관성)의 교육적 폐해를 청산하는 데 두어야 한다. 우리 학교 교육과 평가의 행태는 ‘상대적인 서열 변별’에 도취된 상태이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 논평하는 한 신문 사설에서는 “무릇 평가라는 것은 상대적 우열을 가르는 것이다”라고 호언할 정도이다. ‘상대평가’의 관성이 만연한 상태에서 우리 학교 교육은 본말을 뒤집게 되었다. 학생들은 교과와 학업의 완전학습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잊고 동급생과의 비교 우위를 유지하는 데 골몰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정형화된 시험 문제를 두고 반복 풀이 연습하는 상황을 ‘최악의 학교 교육 사태’라고 경악하지만,<sup>6)</sup>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으로 그런 활동을 권장해도 이상히 여길 게 없는 상태가 되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바로 이런 최면의 상태를 깨고 평가의 본연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관련 보완책들도 이런 정책 취지에 일관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상대적인 평가가 그 자체로 악의 요소는 아니다.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 학생들의 성취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태가 물론 적지 않게 있다. 그러

6) 앞의 주 참조.

나 이런 사태들은 학교 교육에서 부차적인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 학교 교육의 목표는 1등하는 학생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교과 숙달(mastery)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 평가를 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숙달의 정점에 학생들이 얼마나 접근했는지 그리고 정점에 오르게 하려면 어디를 도와주어야 할지 파악하는 데 있다. 누가 누구를 이기는지 파악하는 데 평가의 핵심이 있다는 인식을 조장하고, 결국 ‘상대평가’의 관성이 학교 교육을 식민하는 사태를 방임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절대평가’는 영어영역을 넘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의 본연이 영어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미 교육정책에서 꾸준히 인지해 왔다. 현재도 ‘성취평가제’와 같은 정책으로 이 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은 이와 같이 동일한 기조의 정책과 연결되어야 하고, 그런 기조에서 추가적인 보완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4. ‘수능체제의 전반적인 개편’의 방향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능체제 전반의 논의는 불가피해졌다. 영어영역에서 평가 양식을 바꾸는 것은 그 자체로 과도적일 수밖에 없는 성질을 지닌다. 앞으로 다른 영역의 평가 양식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제기하는 정책이 되는 셈이다. 이 점에 더해,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역시 수능체제 개편을 전제하고 있다. 이제 수능 문제에 대한 성찰은 매우 심각하고 깊게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수능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능은 본래 두 가지 목적을 안고 잉태되었었다. 학교 교육을 ‘주입식’이 아닌 ‘심층 사고’ 중심이 되도록 이끌기 위한 목적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되는 전형자료를 생산하려는 목적이 그것이다. 그러나 앞의 목적은 수능을 도입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범교과적 통합 사고력’ 평가의 취지를 포기함으로써 퇴색되기 시작했다. 수능이 과거 ‘대입학력고사’와 성질상 차이가 없는 교과 시험으로 전환되면서는 사실상 그 목표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능이 아직도 충실히 견지하고 있는 목적은 후자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수능은 매우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며, 모든 대학에서 쓸모를 인정하는 전형자료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 강점이 현재 수능을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교육의 측면에서 수능은 거둬드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오랜 시간을 통해 수능 문항은 정형화되어서, 이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가 교과 역량을 재고 어느 정도가 수험

기술 역량을 재는지 의문을 제기할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전형 자료로서 수능의 위상은 꾸준히 견고해져 왔고, 급기야 사실상의 학교 교육 목표로 자리 잡았다. 결과적으로 역설적이게도, 당초 단편적이고 주입적인 학교 교육을 탐구 중심이며 풍요롭게 이끌기 위해 태어난 수능은 이제 극단적으로 소모적인 시험 위주 수업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파국의 징후들은 수능을 전면적으로 재고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어쩌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시도는, 아직 부분에 그치고 있지만, 그런 징후로 인해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의 초기 움직임일지도 모른다. 이런 움직임이 수능체제 전면 개편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책 진로라고 판단된다.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과 정합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평가의 원칙은 학생 개개인의 교과 학습 수준을 타당하게 드러내는 데 두어야지, 수험생들의 상대적인 우열을 세밀하게 가르는 데 두어선 안 된다. 수능을 절대평가의 양식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이 점에서 합당하다(강태중, 2014).

수능이 고부담으로 치닫는 상황도 엄중하게 제어해야 한다. 급기야 시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끓고, 그런 여론에 편승하는 정책이 들어설 지경이 되어선 안 된다. 현재 그런 명분으로 수능 문항의 유형이나 출제 경향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과 학습은 내용 숙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험 기술(전략) 체득을 위한 것이 되어 버리고 있다.

이와 같은 본말전도의 사태를 극복하는 데 국가 수준의 고부담 표준화(상대평가) 시험이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수능과 같은 시험을 유지하는 한 시험 위주의 편협한 교육 행위를 불식하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반면 대입전형은 경쟁을 전제해야 하고, 어떤 형태이든 그 경쟁을 조정할 국가시험은 있어야 한다는 현실론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런 모순의 상황에서 정책의 길을 잡는 결정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교육’ 정책에서 으뜸 가치는 교육을 보장하려는 데 두어야 한다. 불가피하다면 수능 자체에 대한 대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이런 ‘교육 우선’의 입장을 견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태중.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발전 방향 모색**. 제26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포럼: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방안 탐색 (pp.3-13) (수능 CAT 2014-1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강태훈. (2014).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점수체제 탐색**. 제26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포럼: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방안 탐색 (pp.87-100) (수능 CAT 2014-1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찬호. (2014).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점수체제 탐색**」에 대한 토론. 제26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포럼: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방안 탐색 (pp.111-116) (수능 CAT 2014-1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개발원. (2014). **수능 영어 과목 절대평가 도입 공개토론회**. 제63차 KEDI 교육정책포럼 (RRM 2014-01-0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방안 탐색**. 제26회 KICE 교육과정·평가 정책포럼 (수능 CAT 2014-1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Moore, W.P. (1993). *"Preparation of students for testing: Teacher differentiation of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practic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Atlanta, GA, April 13-15, 1993).
- Näsström, G., & P. Nyström. (2008). A comparison of two different methods for setting performance standards for a test with constructed-response item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3(9), 1-12.





주제 발표 2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점수체제 탐색

박 찬 호 / 계명대학교 교수



## 주제 발표 2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점수체제 탐색

박 찬 호 / 계명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1994학년도에 처음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는 이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초기 수능은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 3개 영역에 대해 통합 교과로 출제되면서 적성검사(aptitude test)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다. 그러나 이후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5학년도부터 영역 내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이 각각 국어, 수학, 영어영역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적성검사보다는 성취도검사(achievement test)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수능의 성격 변화와 함께 제공되는 성적에도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원점수(맞힌 문항 수에 대한 가중합)와 백분위가 제공되다가 1999학년도부터 표준점수가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표준점수와 함께 원점수도 제공되었으나 2005학년도부터는 표준점수만 제공되고 있으며 백분위와 등급도 표준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산출되고 있다. 등급만 제공되었던 2008학년도 수능의 등급 또한 표준점수에 의해 산출된 것이므로 표준점수를 근간으로 하는 상대평가 방식이 15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는 셈이다.

표준점수는 응시자의 성취수준을 집단 내의 상대적 위치로 표현하되 원점수가 일정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도록 선형으로 변환한 점수를 말한다. 즉 표준점수는 피험자의 원점수가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편차 단위로 표현한 것이며,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지 못해도 점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평균과 표준편차가 미리 정해놓은 값을 갖도록 변환한 성적이다.

흔히 상대평가라 부르는 규준참조평가(norm-referenced evaluation)는 응시자의 성취수준

을 규준집단(norm group)에 맞추어 해석하는 방식의 평가를 말한다.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규준참조평가는 함께 응시한 집단을 규준집단으로 하여 결과를 해석하게 되므로 집단 내 경쟁을 심화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능에서 사용하는 표준점수 기반 상대평가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보다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 결과 대학진학률에 맞물려 학생들 간 경쟁을 심화하는 면이 있다.

절대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성취목표를 준거로 삼을 수 있는 준거참조평가(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방식이므로 학생들 간 경쟁을 조장하는 현재의 상대평가보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절대평가 방식에서는 다른 학생보다 높은 점수가 아니라 미리 설정된 교육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의 판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절대평가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하여 도입만 하면 수능, 나아가서는 중등교육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사회를 반영하므로 우리의 교육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평가를 마술봉(magic wand)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역으로 상대평가를 악의 근원 정도로 여기는 정반대의 시각 또한 경계해야 한다. 다만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 간 경쟁이 강조되면서 사교육비 증대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으므로 절대평가 체제로의 전환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표문은 절대평가 방식에서 어떠한 점수체제가 가능한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절대평가 방식에 대한 토론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절대평가에서 등급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급의 수는 몇 개가 될 수 있는지를 주요하게 검토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절대평가의 득과 실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간혹 절대평가의 등급 산출 방식과 등급 수가 정해진 것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절대평가의 점수체제는 도입이 확정된다면 다시 연구가 수행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지게 될 것임을 밝히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 II. 절대평가 점수체제

절대평가 또는 준거참조평가는 학생의 성취수준을 준거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따라서 학생의 성취수준을 판정할 자(ruler)의 역할을 할 준거를 정한 후 그에 따라 등급을 가를 분할 점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절대평가로 산출할 등급의 수는 몇 개로 할 것인지 등이 주요한 고려 대상이다. 먼저 분할 점수 설정 방식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등급의 개수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 1. 분할 점수 설정

분할 점수는 응시자가 받은 점수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점수이며 절대평가 또는 준거참조평가에서 기준이 되는 점수이다.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절대평가에 하나의 분할 점수가 필요하듯 분할 점수는 등급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수만큼 필요하다. 따라서 산출해야 할 등급 수가 많을수록 필요한 분할 점수의 수도 많아지게 된다. 또한 절대평가에서 등급은 절대적인 준거에 의해 산출되어야 하며 타당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산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분할 점수 설정 방식으로 고정 분할 점수 방식과 내용 분석에 의한 준거설정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외 현실적으로 고려할 대상이 되는 방식을 기타로 나누어 살펴본다.

#### 가. 고정 분할 점수 방식

고정 분할 점수 방식은 사전에 분할 점수를 미리 정한 후 그에 맞추어 출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90, 80, 70, 60점을 분할 점수로 미리 정하고 이에 따라 A, B, C, D, E라는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국가시험과 같은 자격시험에서 총점의 60%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격선으로 설정해놓은 것,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취평가제 등이 그 예이다.

분할 점수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학생들이 본인의 성취수준을 예측하기가 비교적 쉽고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분할 점수 산출에 시간과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미리 정해진 분할 점수가 성취기준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결국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서 고정 분할 점수 방식을 채택하려면 미리 정한 점수에 맞추어 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출제진의 부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실현가능 여부가 관건이 된다. 해마다 검사 난이도가 달라

진다면 고정된 분할 점수가 실제로는 서로 다른 기준이 되므로 검사 난이도의 차이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사동등화(test equating)가 필요할 수 있다(Kolen & Brennan, 2004). 과거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고정 분할 점수 방식으로 산출했다가 내신 부풀리기의 문제가 나타났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나. 내용 분석에 의한 준거설정 방식

절대평가에서 준거설정은 임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AERA, APA, & NCME, 2014). 편리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정 분할 점수 방식 대신 내용전문가들이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준거를 설정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Angoff 방법(1971)과 Bookmark 방법(Mitzel, Lewis, Patz, & Green, 2001)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Angoff 방법이나 수정된 Angoff 방법, Bookmark 방법 모두 다수의 전문가들로 위원회(panel)를 구성하고 이들이 등급별 최저능력자(minimally competent person)의 성취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분할 점수를 정하게 되므로 집단지성 또는 다수의 지혜를 준거설정의 근거로 삼게 된다. 다만 준거설정 과정에서 영향 자료(impact data)를 참조하려면 일차적인 성적 산출 이후에 시행되므로 최종 성적 산출이 늦어질 수 있으며 검사동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해 준거설정을 새로 해야 한다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있다.

Angoff 방법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나 의사 국시 실기시험 등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등급별 최저능력자의 수행 결과를 모두 예측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Bookmark 방식은 난이도 순으로 정렬된 문항집(ordered item booklet)에 분할 점수가 놓일 지점만 표시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편하나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을 적용하여 문항의 속성을 추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걸쳐야 한다(Mitzel et al., 2001). 이렇듯 두 방식 사이에도 상대적인 장단점이 존재하나 두 방식 모두 검사동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해 준거설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 다. 기타

그 밖에 준거설정 방식으로 응시자 집단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거의 불가능해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응시자 집단의 비율을 고려하는 규준적 준거

설정 방법도 있으나 이는 절대평가보다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상대평가에서 비율만 조정하는 방식이므로 역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사실상 고정 분할 점수 방식과 내용 분석에 의한 준거설정 방식이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나 이 두 방법 중 하나를 기본으로 하되 변형 내지는 혼합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 분할 점수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매해 실시되는 검사의 난이도를 정확히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검사의 결과를 참조하여 2~3점의 범위 내에서 분할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하나의 예이다. 많은 수(예를 들어 9개)의 등급이 필요할 경우 고정 분할 점수 방식이나 전문가 집단에 의한 판정으로 등급을 대분류한 후 집단 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분류를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이상 논의한 분할 점수 설정 방식의 내용과 장단점 등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할 점수 설정 방식의 내용과 장단점 비교

구분	고정 분할 점수 방식	내용 분석에 의한 준거설정 방식	혼합 방식
내용	· 분할 점수를 미리 정하고 그에 맞추어 출제	· 전문가의 내용 분석에 의거하여 분할 점수를 설정	· 고정 분할 점수 방식이나 내용 분석에 의한 준거설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
장점	· 분할 점수를 설정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음 · 이해가 쉬움	· 이론적 근거가 있고 국내외 적용 사례도 있음 · 연도 간 문항 난이도 수준이 달라지더라도 안정적인 결과 산출이 가능	·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단점	· 출제진의 판단만으로 연도 간 문항 난이도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불가능	·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성적 통보가 늦어질 수 있음	· 엄밀한 의미의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

## 2. 등급 수

절대평가에서 등급은 교육목표에 의하여 사전에 설정된 준거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나치게 세분화하기 어렵다. 전문가 집단의 내용 분석에 의한 준거설정이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등급 수가 5개를 넘기 어렵다. 또한 수시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확대되면서 대학 입시에서 점수보

다는 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기는 했으나 현재 9개인 등급 수를 바꿀 경우 입시 과정에서 학생이나 대학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등급의 개수에 대해서는 절대평가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대입 전형요소로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9등급을 유지하는 방안과 자격고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2~3개의 등급만을 제공하는 안, 절대평가의 틀 안에서 변별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4~5개의 등급을 제공하는 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가. 9개 등급

현재 사용할 수 있는 9등급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다만 내용 분석에 의한 준거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 집단이라 하더라도 8개의 분할 점수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고정 분할 점수 방식에서도 분할 점수 산출이 쉽지 않다. 현재와 같이 수능에서 5지선다형 문항만이 출제될 경우 모든 문항을 추측으로 답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총점 대비 20%의 기대점수를 갖게 되므로 중간 이하 등급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로서의 취지가 퇴색되며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즉 출제진 또는 외부 전문가 집단의 판단만으로 9등급을 위한 등급 분할 점수를 매 시험 안정적이며 일관되게 산출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9개의 등급을 사용할 경우 현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볼 때 9개의 등급에 대한 수행수준기술(performance level description)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내용 분석에 의한 준거설정 방식을 택할 경우 수행수준 기술이 이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 나. 4~5개 등급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 보통, 기초, 기초 미달이라는 4개의 등급을 산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교육향상도평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에서도 마찬가지로 4등급(Advanced, Proficient, Basic, Below Basic)을 산출하고 있다. 수능 영어 대체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에서도 비록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네 영역에서 각각 산출되기는 하였지만 4개의 등급을 사용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되는 AP(Advanced Placement)는 절대평가로 다섯 개의 등급을 산출하며, 현재 중학교에서의 정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에서 시행될 성취평가제에서도 다섯 개의 등급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4~5등급의 절대평가를 많이 사용해 왔으므로 학교나 학생들에 의한 거부감이 덜한 것은 장점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변별력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변별력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 다. 2~3개 등급

이는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활용함에 있어 합격/불합격 판정만 하거나 3개의 등급 정도로 최소한의 판정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수능만을 이용한 변별력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대입의 과정에서 학생의 영어실력은 고등학교 내신성적 등을 이용해 판단해야 한다. 고등학교 영어교육의 활성화와 성취평가제의 안착 등 선결요건이 있어 당장은 2~3개의 등급만을 산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는 안이다. 예를 들어 3개 등급을 기본적으로 산출하고 각 등급 안에서 다시 3개 등급을 세분화하는 3×3 방식을 한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변별력 확보를 위한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논의한 등급 수의 세 가지 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등급 수에 대한 세 안의 장단점 비교

구분	9개 등급	4~5개 등급	2~3개 등급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등급제가 유지되므로 현재의 대입 제도에 별 어려움 없이 적용 가능함</li> <li>변별력 확보에 유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가 집단의 판단으로 정할 수 있는 최대 등급 수</li> <li>절대평가의 의미를 살리는 선에서 변별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적으로 수능이 자격고사로 사용될 경우 적절</li> <li>한시적으로 3×3 방식 등 적용 가능</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적이고 일관된 등급 산출이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별력 부족에 대한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능의 개선방향이 정해지지 않음</li> </ul>

### Ⅲ. 맺음말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며, 절대평가 점수체제에 대해서는 도입안이 확정되면 별도의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이 밖에도 절대평가 점수체제에 대해 다른 안이 있을 수 있으나 수능의 변천사와 현재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의는 정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절대평가의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방안을 전제로 하는 비판론 모두 경계의 대상이다.

현재 수능 영어와 관련된 문제는 쉬운 수능, EBS 교재 연계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그 외부에는 사교육비 문제, 다시 그 외부에는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을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놓여있다.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일거에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의 단초가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면 어떠한 방식의 점수체제를 택하는 것이 정책 도입의 취지를 가장 살리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에 앞서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가 “수능만능주의”일 것이다.

절대평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에서의 혼란, 수능 등급제에 따른 혼란 등 과거의 경험을 반추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수능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문제를 절대평가 점수체제가 바로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일단 학생의 점수를 분할 점수와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면 자신의 실력보다 높은 등급을 받거나 낮은 등급을 받는 학생은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점수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평가의 신뢰도는 표준참조평가만이 아니라 준거참조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아무리 정교하게 절대평가 점수체제를 구안한다 하더라도 관찰한 점수에는 오차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그 오차는 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Crocker & Algina, 1986).

2015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수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현재의 토론이 향후 수능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의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AERA, APA, & NCME. (2014). *The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Washington, DC: Author.
- Angoff, W. H. (1971). Scales, norms, and equivalent scores. In R. L. Thorndike (Ed.), *Educational measurement* (pp. 508–600).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Cizek, G. J., & Bunch, M. B. (2007). *Standard setting: A guide to establishing and evaluating performance standards on tests*. Thousand Oaks, CA: Sage.
- Crocker, L., & Algina, J. (1986). *Introduction to classical and modern test theory*.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Kolen, M. J., & Brennan, R. L. (2004). *Test equating, scaling, and linking: Methods and practices* (2nd ed.). New York: Springer.
- Mitzel, H. C., Lewis, D. M., Patz, R. J., & Green, D. R. (2001). The bookmark procedure: Psychological perspectives. In G. J. Cizek (Ed.), *Setting performance standards: Concepts, methods and perspectives* (pp. 249–281). Mahwah, NJ: Lawrence Erlbaum.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에 대한 토론

- 토론자 : 최은경 (상계고등학교 교사)  
김신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전 한국교육평가학회장)  
권오현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이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응용언어학회장)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 토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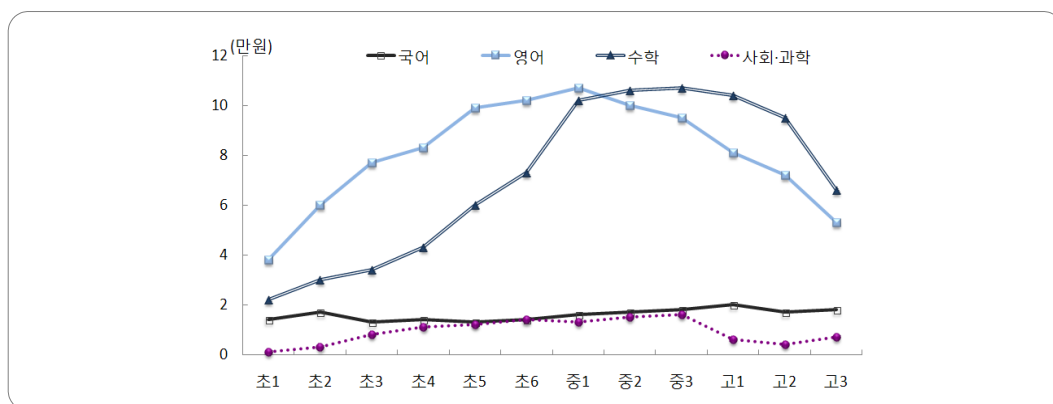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에 대한 토론

최 은 경 / 상계고등학교 교사

## 1.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사교육 절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 가. 고등학교 영어에 투자되는 사교육비의 감소 현상

수능 영어의 현 9등급제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가 영어에 투자되는 사교육비 절감이다. 201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영어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런데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고등학교의 대입과 관련된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하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영어보다 수학으로 인한 사교육비가 더 많이 투자되고 있으므로,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하여 영어의 변별력이 없어지면 수학의 변별력이 커지게 되어서 수학에 대한 사교육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통계청(2014. 2. 27, p.16). 보도자료.

[그림 1] 학년별 및 과목별 사교육비(2013년)

## 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어 사교육비의 증가 원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영어에 대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외고, 국제고 입시 때문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교 내신을 9등급제 상대평가에서 성취평가제(절대평가 5등급, A~E)로 바꾸는 과정에서 영어 내신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올해 외고 입시의 경우 중 3 영어 내신을 9등급제의 상대평가로 환산하여 반영하였다. 이는 영어 내신을 성취평가제로 반영할 때 많은 동점자 양산으로 인해 학생 선발에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 1단계 학생선발방식

[현행]	[변경]
<div>1단계</div> <div>영어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 ※ 영어 내신 산출 방식 ▶ 중2~3 석차 9등급제(상대평가 9등급)로 산출된 영어 내신성적을 합해 정원의 1.5~2배수를 선발</div> <div>+</div> <div>2단계</div> <div>1단계 성적(160점)+면접(40점)</div>	<div>1단계</div> <div>영어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 ※ 영어 내신 산출 방식 ▶ 중2 성취평가제(절대평가 5등급)로 산출된 영어 내신성적과 중3 석차 9등급제(상대평가 9등급)로 환산된 영어 내신성적을 합해 정원의 1.5~2배수 선발</div> <div>+</div> <div>2단계</div> <div>1단계 성적(160점)+면접(40점)</div>

\*출처: 교육부(2014. 1. 8, p.8). 보도자료

<표 2> 중학교 2학년 영어 내신 성취 평가제 환산점수

성취도 수준	A	B	C	D	E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출처: 대일외국어고등학교(2014, p.9).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lt;표 3&gt; 중학교 3학년 영어 내신 9등급제 환산 점수

기준	4%	11%	23%	40%	60%	77%	89%	96%	100%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환산점수	40	38.4	35.6	30.8	24	16	9.2	4.4	1.6

\*출처: 대일외국어고등학교(2014, p.9).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따라서 내신의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의 혼용 표기 방식은 2017학년도까지 유지하고, 2018학년도 이후 성취평가제 전면 반영 여부는 대입에서의 내신의 성취평가제 적용 문제와 함께 2015년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만약, 외고 입시에서 영어 내신이 성취평가제로만 표기된다면, 학생을 선발할 또 다른 평가 도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외고에서는 내신에서 영어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대입보다는 복잡하지 않지만, 대입에서는 수능 영어만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면 변별력 있는 국어와 수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교육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기 쉽다.

현재 2014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내신에서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이 유보되어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내신의 변별력 확보 문제 때문에 상대평가제의 등급과 성취도를 병기하여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표 4> 참조).

&lt;표 4&gt;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 병기 표기 예시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영어	실용영어 I	6	98/68.5(21.2)	A(410)	1	6	93/58.5(19.2)	A(410)	1

## 2.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정부는 올해 대입을 수시 4개 전형과 정시 2개 전형으로 간소화하였다(<표 5> 참조).

<표 5> 2015학년도 수시와 정시 전형 요소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 (학생부 교과) 교과 중심
		· (학생부 종합) 비교과, 교과, 면접 등(자기소개서, 추천서 활용가능)
	논술 위주	· 논술 등
	실기 위주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 수능 등
	실기 위주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출처: 교육부(2013. 8. 27, p.4). 보도자료.

해마다 수시 모집 비율이 정시 모집 비율보다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 비교

구 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2016학년도	243,748	66.7	121,561	33.3	365,309
2015학년도	241,093	64.0	135,774	36.0	376,867
차이	2,655	2.7	-14,213	-2.7	-11,558

\*출처: 비상교육(2014, p.3). 「2016~2017 입시의 변화와 대책」.

201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는 인문계열에서도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수학의 반영비율이 30%로 영어 25%보다 5% 높게 반영되고 있다(<표 7> 참조).

&lt;표 7&gt; 2015학년도 서울대 정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대학	모집군	모집 단위	활용 지표	영역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100%)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 한문
					A	B	A/B	A	B	A/B			
서울대	가	인문계	표+백	4		25		30			25	사20	()
서울대	가	인문계	표+백	4	25				30		25	과20	
서울대	가	자연계	표+백	4	25				30		25	과/직 20	

\*출처: 종로입시전략연구소(2014, p.3).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올해 정시 수능 100% 선발」 참조

따라서 수능 영어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시에서 서울대의 경우 수학보다 작다. 그리고 고대와 연대처럼 국영수의 반영 비율이 28.6%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표준점수 특성상 평균이 낮고 표준편차가 작을 때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학의 변별력이 커서 영어보다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수능최저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수능최저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 논술 전형(수능최저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 등으로 정시와 달리 점수로 반영되지 않고 수능 최저등급으로 반영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등급에서 영어를 필수로 지정하는 대학은 많지 않은데, 자연계열에서는 수능 최저등급에 수학 또는 과탐을 필수로 지정하는 대학이 많다(<표 8> 참조).

&lt;표 8&gt; 2015학년도 논술전형의 수능 최저등급 예시

대학	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00대	논술전형	국B, 수A, 영, 탐(2) 중 3개 2등급	국A, 수B, 영, 과(2) 중 2개 2등급 (단, 수B 또는 과탐 중 1개 포함)

수시에서 내신 영어는 9등급제의 상대평가로 반영되고 있다. 내신 영어 과목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모두 반영된다(<표 9> 참조).

<표 9> 내신 반영 과목과 반영지표 예시

반영 교과목			산출지표
반영 교과		반영 과목	
인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반영교과의 석차등급 상위 3과목(최대12과목) 또는 반영교과에 속한 전 과목	9등급제 상대평가 석차등급
자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또한 영어 내신은 <표 10>과 같이 9등급제 상대평가로 반영되어 전체 인원수에 따른 비율이 적용된 등수로 등급이 산출된다.

<표 10> 내신 9등급제 상대평가 비율 예시

등 급	1	2	3	4	5	6	7	8	9
구간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350명	14	39	81	140	210	270	312	336	350
200명(문과)	8	22	46	80	120	154	178	192	200
150명(이과)	6	17	35	60	90	116	134	144	150

따라서 영어 내신은 9등급제의 상대평가로 반영되고,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로 반영된다면 평가의 일관성이 없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한 수시에서 높은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는 논술전형의 경우 내신의 실질반영률이 적기 때문에 수능과 논술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문계열 논술에서는 국어와 사회 또는 통계나 도표 문제가 출제되고, 자연계열 논술에서는 수학과 과학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 충족을 영어로 하지 않는다면 영어의 비중은 높지 않다.

### 3.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방식에 대한 생각

2014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의 성적은 상대평가에 따른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을 제공하는 타 영역과 다르게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한다고 한다. 즉 한국사 영역의 만점은 50점이며, 등급을 분할하는 원점수는 1등급과 2등급의 분할 점수인 40점을 기준으로 5점씩 낮아진다고 한다(<표 11> 참조).

&lt;표 11&gt; 한국사 영역 등급 분할 원점수(하한 점수)

등 급	1	2	3	4	5	6	7	8	9
분할기준 (원점수)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출처: 비상교육(2014, p.9). 「2016~2017 입시의 변화와 대책」.

그렇다면, 수능 영어도 한국사처럼 일정 점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표 12〉 참조).

&lt;표 12&gt; 영어영역 등급 분할 원점수(하한 점수) 예시

등 급	1	2	3	4	5	6	7	8	9
분할기준 (원점수)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10점

다만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반영이 될 경우, 국영수탐 4가지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하위권 대학의 인문계열이나 전문대학에서 국영사 3개 영역을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절대평가로 인해 영어의 변별력이 없다면 영어를 빼고 국수탐으로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있다.

#### 4.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고등학교 영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 시험 출제를 비교해 보면 〈표 13〉처럼 정리할 수 있다.

&lt;표 13&gt;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 출제 비교

구 분	학생부(교과)	수능시험
출제자	해당 학교 교사	대학 교수, 고교 교사
응시자	해당 학교 학생	전국의 모든 수험생
문항 형식	주·객관식·수행평가	객관식
출제 범위	교과서 내	EBS 연계교재 및 기타
평가 목표	기본개념·원리의 이해력	응용력, 문제해결력

\*출처: 비상교육(2014, p.18). 「2016~2017 입시의 변화와 대책」.

내신 영어는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교과서가 다르고 교과서 지문으로 수능 문제를 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EBS 연계 교재로 수업을 해야 수능을 준비시킬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EBS 교재를 정규 수업시간에 사용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표 14〉 참조). 그렇다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로만 공부해야한다면 수능 영어에 대한 대비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고생이 아닌 일반고 학생들은 쉬운 수능 영어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

〈표 14〉 EBS 수능 연계 교재 사용 관련 교육청 공문 내용

고등학교 정규수업시간에 EBS 수능교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시의회, 교육부 회의,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EBS 수능교재 사용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교육과정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EBS 수능교재는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정규수업 시간에 사용할 경우 교과용도서의 보완 교재로서 활용
- 나. EBS 수능교재를 학생이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야 함
- 다. EBS 수능교재를 사용한 단순 문제풀이식 수업 지양

\*출처: 교육부(2013. 3. 4.). 공문.

## 5. 제 언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만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FL 환경에서 수능 독해 위주의 대입을 준비해야 하고 영어교사 양성과정에서 말하기와 쓰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기와 쓰기 위주의 고비용의 NEAT 시험으로(1회 시험 비용이 약 6만원) 수능 영어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학벌 사회가 아닌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고, 미래 사회 인재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과정이 구현되어야 한다. 인문 자연 계열의 통합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과 수업 양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되거나 적성에 따른 선택을 뒤로 미루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출제가 아닌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강의 중심이 아닌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측면에서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현장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영어 수업시간에만 공부하고 교실 밖에서는 아무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EFL 환경에서 말하기, 쓰기를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고입, 대입, 편입시험, 취직시험, 대학원 시험에서 영어 시험을 봐야하는 상황에서 영어에 투자되는 사교육비는 많을 수밖에 없다. 단순히 수능 영어만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꾼다고, 영어에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가 순식간에 줄어들 수는 없다고 본다.

9등급제 수능 영어에서 적정 수준의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번의 모의고사 시험을 통한 난이도 조정과정을 거쳐야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있어서도 성취 평가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보기 전에 성취도를 미리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9등급제의 상대평가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로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13).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2013. 8. 27.
- 교육부. (2014). **2014년 EBS 수능 교재 사용 관련 유의 사항 안내**. 교육부공문(중등교육과-3829). 2014. 3. 4.
- 교육부. (2014). **2015학년도 외교·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발표**. 보도자료. 교육부. 2014. 1. 8.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2014).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http://daeil.or.kr/hosts/daeil.or.kr/link\\_doc/2015\\_daeil\\_guidelines\\_applicants..pdf](http://daeil.or.kr/hosts/daeil.or.kr/link_doc/2015_daeil_guidelines_applicants..pdf).
- 비상교육. (2014. 9). **2016~2017 입시의 변화와 대책**. 입시자료.
- 종로입시전략연구소(2014).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올해 정시 수능 100% 선발**. 입시자료. <http://www.jongro.co.kr/reports/examAnalysisView.asp?idx=5728>.
- 통계청. (2014). **2013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2014. 2. 27.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311887](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311887).





## 토론 2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에 대한 토론

김 신 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전 한국교육평가학회장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고력 신장을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대입전형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된 후 20년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오면서 수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수능이 기반하고 있는 9등급 상대평가체제는 점수에 의한 획일적인 서열화로 지나친 점수경쟁을 야기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평가는 학생 간 경쟁을 완화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수능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도입은 그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왜 영어영역에서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체제의 도입을 논의하는가? 다른 영역에 비해 영어 사교육비중이 높기 때문인가? 영어영역의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방안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방안은 영어교육 자체의 문제로 그 적절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수능 출제에서 교과와 특성상 다른 영역에 비해 영어영역에서는 상대평가 9등급을 변별력 있게 구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형적인 문항들을 출제함에 따라 문항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동점자를 줄이고 4%의 1등급과 7%의 2등급을 구분하는데 몰두하게 하기 보다는 타당성 있는 문항출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면 어느 수준의 성취도를 보여주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며,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실질적인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면 수능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도입 논의는 적절한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과 국가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학교교육으로 성취 가능한 적정수준을 수준별로 등급화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사교육 영향력을 줄이고 학교교육과 개인

역량이 영어능력 변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했고 개정된 교육과정은 초·중·고 교육현장에 2018년부터 연차 적용되며, 이들이 치르게 될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개정된 교육과정을 반영해 대학입학전형 사전예고제에 따라 2017년에 체제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도입방안은 2017년 발표될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고려한 수능체제개편과도 연계해 논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등학교에는 현행 석차 9등급 내신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준거참조평가인 성취평가제가 도입되어 2012년부터 중학교의 전 교과와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어왔으며,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경우도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신성적 반영비율의 축소 등의 우려로 성취평가제 결과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2018학년도까지 유예했으며, 2019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에의 반영 방식은 2015년에 결정할 예정이다. 수능의 점수체제 개선은 고교 내신의 점수체제의 변화와 연계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전형자료로서의 수능의 변별력이 감소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형자료는 내신성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도입은 영어영역에 한정해 논의하기보다는 이를 시작으로 수능시험의 성격 및 역할, 시험체제에 대한 단계별 발전계획을 구안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도입 목적이 선발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취 목표에의 도달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통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기하고 영어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면, 성취목표와 성취기준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그 도달정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견고하게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해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절대평가의 점수체제가 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의 영역별 준거참조평가를 위한 등급수준별 기준 설정이 요구되며, 이는 전체적인 수능의 역할과 구조 속에서 성취수준을 평정하기 위한 분할 점수 산출과 그 타당성 확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유형 및 개발 체제, 수능 성적의 활용방안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수능 영어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는 가정 하에 어떤 점수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등급을 어떤 방식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등급의 수는 몇 개가 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집중될 것이다.

등급구분을 위한 분할 점수 설정방식은 크게 고정분할 점수 방식과 내용분석에 의한 준거설정 방식으로 나뉘볼 수 있다. 사전에 분할 점수를 미리 정한 후 그에 맞춰 문항을 출제하여 편리하긴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정분할 점수 방식 보다는 내용전문가들이 출제된 문항의 내용분석을 통해 분할 점수를 설정하는 내용분석에 의한 준거설정방식이 수능과 같이 많은 교과전문가들이 관여하는 표준화 검사에서는 보다 적절한 접근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분할 점수 설정방식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 봐야 할 점은 2017학년도 수능부터 도입하기로 결정된 한국사의 고정분할 점수 방식에 의한 9등급제로 발표된 절대평가 점수체제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 하나의 검사도구이며 하위영역인 국어, 수학, 과학, 사탐 등의 대부분의 하위영역이 상대평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 그리고 영어영역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도 시험체제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어색한 일이지만, 일부 절대평가가 도입된 시험영역에서 조차 점수체제가 상이하다는 것은 검사체제의 개발 논리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국사의 절대점수체제가 이미 발표되었다 하더라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그 점수체제의 타당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절대평가체제에서의 등급구분을 위한 분할 점수 설정방식은 동일한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필수로 도입된 한국사 성적의 반영방식은 한국사의 도입취지를 고려해 그 차별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등급 수는 절대평가에서는 교육목표에 기반해 사전에 설정된 성취기준과 준거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나치게 세분화하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등급 수가 5개가 넘으면 등급에 대한 수행수준기술(performance level description)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학교현장에서는 4~5등급의 절대평가를 가장 많이 사용해 왔다. 현재 학교현장에 도입된 성취평가제의 등급수가 5개 이므로 중등학교 교육과정운영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수능의 등급수도 5개로 하는 것도 적절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수능의 변별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겠다는 계획 하에서는 3개(상, 중, 하)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대평가의 결과에 준거참조적 해석을 덧붙이는 데는 큰 무리가 따르지만, 절대평가의 결과에 상대평가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변별력이 약할 수 있다는 것 외엔 무리가 없다. 따라서 다른 영역의 상대 9등급 점수체제와의 조율이 필요하고 이미 발표된 한국사의 절대평가 9등급제가 수정보완이 불가능하여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등급구분을 내용분석에 의한 준거설정 방식으로 3등급(상, 중, 하)으로 구분하고 절대평가점수를 선발에 활용할

경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등급별로 순위적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각 등급 안에서 3개 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각 등급내의 가능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간의 차이를 균등하게 세 부분으로 분할하거나 각 등급 내 비율을 균등하게 세 부분으로 분할하여 상상, 상중, 상하와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사후 모색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점수체제를 탐색함에 있어 수능 영어를 현재와 같이 하나의 점수로 보고할 것인지 아니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란 절대평가 도입 취지의 실현을 위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하위영역으로 세분하여 평가하고 통합하여 등급수준을 구분할 것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말하기와 쓰기 시험체제의 운영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과 파생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쉽지 않다면, 말하기와 쓰기 평가는 학교수준에서의 평가로 하여 통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수능시험에서 낮아진 영어의 반영률을 내신에서의 영어성적과 연계해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수능의 변별력을 줄이고자 할 때 항상 문제시 되었던 것은 마땅한 다른 변별 전형자료가 있는 것이었다. 현재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학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주요 변별 전형자료로 삼는 것에 대해 항상 소극적이어 왔다. 이는 선발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며, 이런 우려는 학생선발이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검사 점수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타당성과는 상관없이 신뢰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는 점수에 의존하려는 대입전형방법이 변해야 하며, 정부와 대학은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택형 지필고사인 수능이 짚 수 있는 학업능력은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수능이 재지 못하는 대학수학능력 요인들에 대한 평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전형자료들을 구안해 내지 못한다면 대입전형이 타당하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 토론 3

##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추진에 대하여

권 오 현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 1. 한국에서 대학입시의 성격

높은 식견이 묻어나는 두 분의 발표에 감사드리며 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방안에 대해 주로 대학입학 전형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려 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대학 입시는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핵심 단계 중의 하나이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기계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통로는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이 상충되는 치열한 자리다툼의 무대이기에, 통로로의 접근 기회를 조정하는 정책적 결정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파장을 낳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입시는 다양한 기능이 이면에서 상호작용 하는 대표적 ‘복잡계(complex)’라 합니다. 복잡계의 경우에는 비록 전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나 이들을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조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학입시의 기능을 예로 들면, 대학 수학 적격자를 가려내는 선발적 기능(대학중심),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는 교육적 기능(학교중심), 사회 통합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사회중심), 학생에게 자신의 꿈을 계속 이어갈 기회를 제공하는 계발적 기능(학생중심) 등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이 유기적으로 뒤엉켜 있어서 하나의 기능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입시 전체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며 그 갈등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리하여 입시에 대한 논의는 예나 지금이나 시원한 해답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해답처럼 보이는 것의 언저리에 그저 젖어보는 기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모두 빠져나가더라도 콩나물은 쑥쑥 자라듯이, 입시에 대한 모든 의견들은 제시되는 그 자체로 이미 최적화를 위한 하나의 자양분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본 토론을 진행하려 합니다.

## 2. 영어 절대평가 논의의 출발점에 대해

지금까지 대학입시 제도(대학별 전형이든 대학수학능력시험이든)에 대한 변화 모색은 대학, 학교, 학생과 같은 교육 주체들의 요구에 부합하려는 교육내적 동인보다는 사회적 문제의 완화가 국가적 어젠다에 응답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사회 정책적 흐름에 그때그때 응답하느라 대학입시는 변화의 질은 피로감에 쌓여 있으며, 한 때 자신감 있게 수용한 개혁들도 복잡계로서의 입시제도에 내재하는 어려운 공식 속에 어느 듯 해답이 오답이 되어 있음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발표자의 언급처럼,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도 “대입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전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높은 사교육 의존에 따른 부작용을 그 주된 원인 제공자인 대학입시 개편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이제는 과감히 그리고 보다 솔직히 교육의 문제는 교육 내적 정비를 통해, 사회적 문제는 국민의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해 해결하는 양동 작전을 추진할 때입니다. 사교육 완화가 국가균형 발전과 같은 사회적 선(善)을 도모하는 것은 대학 입시의 기능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대학입시의 생명줄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입시의 본질은 공동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와 대학과 국가가 공동보조를 맞추며 엄격한 공정성과 안정적 예측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학입시가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성을 갖추려면 모든 제도개편의 논의에서 학교 교육과의 연결고리를 주된 근거로 강조하는 데 치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 토론자는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또다시 오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한국교육의 효율화 및 선진화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삼아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인재 양성의 비효율성은 학교교육, 대학교육, 직업세계 사이에 인재 양성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 기인하는 바 큼니다. 교육계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인 공교육 역량 강화 방안은 학교급별 연계성 제고를 통해 추진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는 각 학교급별 교육은 나름대로 밀도 있게 이뤄지나 상하 학교급 사이의 연계성이 미흡함으로써 각자가 엄청난 힘을 쏟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비효율적 구조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초·중·고·대학과 사회가 연계 관점에서 적절한 기간 동안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영어 역량을 협력적으로 육성하면, 공교육의 사회적 신뢰성은 크게 증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교육

기반의 장기적·협력적 인재 양성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등, 중등, 대학이 자신의 영어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설정에 있어서 전후 학교의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독일처럼 대학입시도 선발과 배제의 장이 아니라 양쪽 학교급의 교육내용을 자연스레 연결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는 연계의 마당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수능 영어의 성격과 절대평가제

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 관점에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를 논의하려면, 먼저 현재 운영되는 수능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수능 영어는 (1)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영어능력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소양 평가, (2) 고교 영어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교육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였는지를 국가수준에서 확인하는 성취 평가, (3) 대학입시의 전형자료 중의 하나로 역할을 하는 입시공학적 평가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1) 대학수학 소양평가의 성격은 수능 초기의 지향이나 명칭의 유래와는 달리 그 기능이 많이 무디어졌습니다. 대학 사회에서 영어는 원어민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의 성격을 넘어 강의, 교재, 교우 등에서 정보를 구하고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도구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생의 수능 점수와 공인영어시험(TEPS 등) 점수 사이 일치도가 낮으며, 영어 강의를 더 많은 자연계(공대, 자연대 등) 입학생이 인문계보다 수능 점수가 낮은 것을 보면 수능 영어능력과 대학 수학을 위한 영어능력 사이의 상관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학교 교육의 성취도 평가라는 성격은 수능 영어가 학교 교육에 기반을 둔 문항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의 표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능은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공교육 부담요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다 응시할 필요가 없는 현재의 수능을 학교교육의 성취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장치라고 부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 수능 영어의 가장 확실한 존재 의미는 (3) 입시공학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능 영어는 국어 수학과 더불어 정시전형의 비중 있는 평가 요소이며 당락을 좌우하는 큰 변수입니다. 그러나 학교-대학 연계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진단하면 전형요소로서 영어에는 과잉 성취된 부분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최근 우리 사회에 쉬운 수능 영어의 기조가 통한 것은 사교육 의존도 완화라는 사회적 설득력 때문만이 아니라 입시공학적으로 나타

난 과잉성취 부분도 함께 작용했다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대학입시를 선별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연계 교육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즉 수능 영어를 학교와 대학의 영어교육 바통 이어받기라는 차원에서 판단하면, 본 토론자는 원칙적으로 영어 절대평가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입환경에서 절대평가의 취지를 도입하는 것은 대입전형을 뒤흔드는 악역이라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의 영어는 아무리 성취도가 높아도 대학의 학술영어와 바로 연결되지 않으며 대부분 대학의 일반 영어를 경유하여 학술 영어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 영어와 대학 영어가 연결되는 지점이 일반 영어 부분이고 수능이 담당한 평가도 이 부분이라면 연계 지점(대학입시)에서 요구되는 영어 능력은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성취도의 촘촘한 위계질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능이 담당하는 일반 영어는 국어나 수학에 비해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을 탐구하는 기능의 성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받아들일 여지가 국어나 수학보다 더 많습니다. 대학교육에서 지식은 촘촘하게 다가가야 하지만 기능은 듬성듬성 나누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능력의 세밀한 단계화가 아니라 실제 생활이나 학업수행에 필요한 일정 단계의 언어 구사 능력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지닙니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영어의 절대평가가 수능의 전면 개편 시에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는 길이 되는 데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에서 평가권을 적절히 분담하는 것은 사회적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현재의 대표적 전형요소인 수능(국가의 평가권), 학생부(학교), 면접/논술(대학)은 평가권을 각 주체들에 균형 있게 분담시켜 대학입시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는 것은 예산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비효율 구조를 야기할 뿐 아니라 그동안 대입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온 평가권의 균형이 상실됨으로써 학교(학생부)와 대학(논술/면접)의 평가권이 침해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대학입시에서의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절대평가를 도입하려는 정책의 구체적 면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양상을 보고 짐작하건대,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수능 100% 전형을 시행하는 대입 정시에서 1등 합격점과 컷라인 사이의 점수 간격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늘게 되면



서 동점자처리 기준이 당락을 좌우하는 모집 단위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집인원이 많은 학과나 광역 모집단위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10명 이하의 소수 인원이 배당된 상위권 대학의 모집단위에서는 지원자 전원이 동일 점수인 사례도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에서 변별력을 얻을 수 있으면 되지만, 쉬운 수능 정책이 유지되고 일정 점수대가 지원하는 학과 군이 형성되어 있는 오늘날의 지원 풍토에서 보면, 100% 수능 전형에서 동점자 속출은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별성 약화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대학 측에서는 당연히 전형간소화 지침을 완화하여 수능과 다른 전형요소가 결합된 전형유형의 도입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 때 추가되는 전형요소로는 학생부 교과, 구술면접/논술, 영어면접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영어면접은 절대평가 도입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요소이기에 정당성이 없으며, 구술면접과 논술도 전형과정을 단계화 함으로써 전형간소화의 요구와 상충됩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100% 수능 전형의 보완책으로 새로운 전형요소를 추가한다면 학생부 교과가 가장 적당하며, 양측의 배분 비율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기준은 다르겠지만 <수능 70~80% : 학생부 교과 30~20%>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시는 대학(학생부 종합)과 학교(학생부 교과)의 평가권 분담 체제, 정시는 국가(수능)와 학교(학생부 교과)의 평가권 분담 체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절대평가 체제로 바뀐 후 수능 영어를 입시전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상됩니다.

- (1) 절대평가 등급에 대학이 자체 점수를 부여하여 다른 영역과 함께 총점에 합산하는 방식
- (2) 합산 점수에는 넣지 않고 절대평가 등급을 근거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
- (3) 최저 등급기준으로만 활용하는 방식
- (4) 절대 점수(원점수)가 제공된다면 이를 다른 영역의 점수에 맞게 보전하여 총점에 반영하는 방식

네 가지 방식이 지닌 각각의 장단점은 오목조목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변별력의 측면에서 순위를 매기면 (4)-(1)-(2)-(3)이 됩니다. (4)의 경우는 상대 점수(표준점수, 백분위) 배분에 따른 출세우기에서 벗어나 각자가 이룬 성취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데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절대 점수도 촛촛하게 제시되어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2)와 (3)은 절대평가 취지는 가장 잘 반영한 방식이나 변별력이 약하여 합격권 밖의 지원자에게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대학에서 있으나마나 한 전형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1)의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큰데, 이 방식은 절대평가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각 등급에 어떤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국어 수학 등 다른 영역과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될지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입시공학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 5. 절대평가 등급 구분 방식에 대해

언어능력의 준거설정과 이에 따른 등급 구분을 논의할 때 중요한 문제는 등급 구분을 활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나 그리고 등급 구분에 적합한 타당한 준거 설정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느냐 하는 점일 것입니다.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준거 설정도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전체적 영어 능력(기초-중급-전문 등)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총괄 척도를 설정하고 그 맥락 속에서 수능 영어의 준거를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참조기준은 <A: 기초적 언어사용>, <B: 자립적 언어사용>, <C: 숙달된 언어사용>으로 나눈 후 각 영역을 1, 2로 구분하여 총 6단계(A1-A2-B1-B2-C1-C2)의 총괄 척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단계 각각에 해당되는 준거를 기술하고 이를 근거로 단계별에 해당되는 시험을 운영합니다. 수능 절대평가 체제도 이러한 구조 속에 대입하여 보면, 고교-대학 연계 관점에서 고교 영어는 A 수준, 대학영어는 B수준, 고급수준은 C수준으로 구분하고 수능은 A2 수준에서 B1 수준으로 넘어가는 연계지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대평가 방식에 관련해서는 발표자들의 지적처럼 예상되는 대안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언급된 방안 중에서 고정분할 방식이 예측성 및 항시성 면에서 그나마 현실적이라 판단됩니다. 분할 점수를 성취 준거 기술과 일치시키는 과학적 근거 마련이 쉽지 않겠지만 내용 분석에 의한 준거설정 방식은 인력과 비용 증가는 차치하고서라도 높은 예측성을 기대하는 수험생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정분할 방식이 도입되면 매년 일정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는 데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발표물에서 언급한 다양한 등급 분할, 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9등급제 모두 각자 나름 장단점이 있겠지만 입시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고 전형요소로 활용의 여지가 있도록 변별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등급이 세분화되면 각 등급의 목표 수준이나 준거 기술이 어렵겠지만 최소한 5등급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

면서 일정부분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그나마 5등급이 적당할 것입니다. 5등급은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성취평가제와 맞물려 운영할 연계성이 강하고 등급 구분이 학교 현장에서 익숙하다는 점에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지금까지 본 토론자가 언급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변화의 피로감에 지쳐있는 대입제도에 내성을 강화시켜주려면, 제도적 변화를 사회적 선(善)의 구현에 연결시키는 풍토에서 벗어나 교육 내적 논의에서 더욱 근거를 찾아야 한다.
- (2) 입시를 고교-대학 교육의 연계 지점으로 자리매김하여 본다면, 수능 영어에는 과잉 성취의 측면이 들어 있기에 영어 절대평가 도입은 입시공학적으로도 일정부분 타당성을 지닌다.
- (3) 수능 영어절대평가 도입 후 대입 정시전형에 변별성을 높이려면 전형간소화 지침을 완화하여 다른 전형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가할 전형요소로는 학생부 교과가 가장 적합하다.
- (4) 절대평가로 바뀐 후 수능 영어를 입시전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절대평가 등급(예, 5등급 구분)에 대학이 자체 점수를 부여하여 다른 영역과 함께 총점에 합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 (5)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준거 설정은 전체적 영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총괄 척도를 배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등급 분할은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면서 일정부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5등급이 그나마 적당하다.

절대평가의 취지와 대입현실 사이의 긴장 속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작동되기를 기대하며 본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 4

## 본질적인 교육 목표에 따른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위해

이 길 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응용언어학회장

### 1. 논란의 시초 - 잘못된 출발

상대평가라 불리는 기준참조평가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 보다는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하는 평가로서 집단 내 경쟁을 심화하게 한다. 한편 절대평가는 준거참조평가로서 미리 설정된 교육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판정하는 평가이다.

박찬호 발표자의 의견처럼, 다른 복합적인 외부 요인을 따지기 전에 순수 교육적으로만 바라 보면 경쟁과 비교우위를 떠나 학습상태가 일정기준에 도달하였는지 판정을 하는 절대평가가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문제는 그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강태중 발표자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논란의 맥락’을 통하여 어떻게 이 논란들이 시작되고 전개되어 나갔는지 그 흐름을 잘 짚어 주고 있다. 첫째, 지난 2월 17일 중앙일보에서 교육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 논란의 출발점이었으며, 둘째는 뒤이은 교육부의 해명 그리고 셋째로 8월 27일 교육부장관의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그리고 넷째로 같은 날 나온 교육부 설명 자료를 차례대로 언급하였다. 그런데 절대평가 도입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내용은 모두 한결같이 사교육시장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흥미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특별히 교육부장관의 기자간담회와 같은 날 발표된 교육부의 최종설명을 보면, 도입의 배경으로 “현행 상대평가 체제에서의 과도한 수험준비 및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위 흐름을 읽어가다 보면 교육부의 절대평가 관련한 움직임의 동기는 사회적인 문제들, 즉 과도한 수험준비와 사교육비 경감차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영어교육의 본질적 측면, 즉 효과적인 영어교수와 학습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대중적인 요법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강태중 발표자도 절대평가 전환이 사교육비 경감 문제가 아닌 교육적 문제로 시작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절대평가 전환의 첫 출발이 잘못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이 접근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만약 시행 후에 의도했던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정책은 쉽게 뒤집어지게 될 것이며 대중적인 정책의 실패로 인한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자들과 이 사회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공청회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영어교육의 본질적 측면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영어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며, 차제에 영어교육의 다양한 문제들도 함께 개선하는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과 과도한 수험준비에 대한 대중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모색을 시작한 교육부가 영어교육의 교수와 학습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생각할 마음의 준비가 현재 되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 2. 본질적 교육의 측면에서 본 절대평가

과도한 점수경쟁을 지양하고 일정 수행기준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오면 합격이 되는 절대평가의 한국의 비정상적 입시열기를 고려한다면 학생들의 지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의도가 충분히 있는 바람직한 제안으로 생각한다. 2006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영어교육혁신 방안’ 발표이래로 2010년 ‘영어교육 질 제고 및 격차해소방안’에 이르기까지 현행 영어교육 관련하여 교육부가 가장 큰 화두로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English Divide(영어격차, 즉, 영어 실력 차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격차가 커진다고 여기는 현상)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의사소통능력문제는 시험과 경쟁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느냐의 절대평가로 가게 된다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 문제를 해결해 가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전의 공청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절대평가는 영어 과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쉬운 영어에 대한 성취동기가 높아질 수 있겠다. 무엇보다 의사소통중심의 교수방법을 사용한 수업방법이 운용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나아가 협동학습 및 창의인성교육에도 일정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하위 학습자가운데 일정 수준에 오른 학생들은 영어 과목에 대하여 더 이상 동기부여를 갖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Brown(2006)에 따르면 동기부여와 모험시도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큰 변인인데 동기부여의 실패와 상승하고자 하는 의욕부재는 영어실력의 정체 가능성마저 있다. 아울러 하향평준화의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과 그러지 못한 학생 간의 차이는 여전히 그 간극이 넓어질 것이며 교육부의 화두 가운데 하나인 English Divide 문제는 절대평가 전환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에서는 중하위권의 학생들의 이러한 현상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신입생을 받아 대학영어에 걸맞은 합당한 실력이 되도록 영어교육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3. 사교육비 경감 효과 의문

절대평가로의 전환의 애초 의도였던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의 부분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한국사회의 영어 광풍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학벌사회에서 ‘영어학벌사회’로 진화한 한국의 분위기에 있어서 영어에 대한 쏠림은 매우 심한 편이다. 2009년 2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영어를 잘하면 그러지 못한 이들보다 대체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 30%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 같은 ‘영어 프리미엄’이 2000년대 들어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고 전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영어실력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중상위권 이상 되는 학생들은 절대평가의 일정 등급성취 이후에도 계속적인 실력 향상을 꾀하고자 할 것이기에 그들에게 사교육비의 경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찌하든지 일정 등급만 받으면 중상위권과의 격차가 줄어들기에 그 해당등급을 도달하기 위해 사교육을 동원해서라도 애를 쓸 것이다. 그러므로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횡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상위권과 중하위권 간의 서로 다른 목표와 사교육 차이로 인해 English Divide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절대평가에 따른 변별력 약화로 각 대학들은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형요소를 만들어 낼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4. 마치는 말 - 바람직한 방향

수능 영어 절대평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교육적 이유가 아닌 사교육비 경감의 목표를 두고 맨 처음 접근했던 교육부의 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한다. 대중적인 요법에 따라 변경되는 절대평가는 애초 의도했던 사교육비 경감의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자칫 사회적 혼란과 학생들에게 피해만 가져다 줄 가능성이 많다. 한국의 교육열과 영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위를 고려해 보건대 수능에서 일정 점수를 획득하여 최상등급이라 하더라도 ‘영어 학벌사회’에 중요 권력의 핵심인 영어에 대한 무한경쟁은 계속될 것이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추가적인 사교육을 통해 실력을 더 올릴 수 있으면 계속 올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의 영어교육 교과과정의 목표에 따라 영어교육의 본질적 측면 다시 말해 영어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만한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교육의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에 비해 보다 더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활동을 하며 성취동기를 진작시키고 협동학습을 통해 보다 더 의미 있는 수업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하기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효율적 교수학습의 구현이라는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육받은 한국인으로서 Lingua Franca인 영어를 세계어의 관점에서 어떻게 잘 구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절대평가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속성상 수능시험은 우수자원을 선발하는 목적으로 치르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상호비교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를 절대평가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함은 필연적으로 그 주체가 대학이던 교육부이던 다른 방식의 평가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렇기에 입시에 대한 골격이 달라질 것이 예상되며 이는 사교육의 증가 및 또 다른 혼란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수능 영어영역에 절대



평가가 도입되면 고교는 물론 대학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대학 선발권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찌 될 것인지 다양한 입시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어능력이 필요한 학과인 경우(영문과, 영어교육과 등)엔 단순한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이외에 다른 전형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급속한 변화보다도 먼저 절대평가의 장점에 대한 범 사회 전반적인 학습 및 동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혹 있을 수 있는 혼란이나 부작용을 인내심 있게 넘길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고교과정에 맞는 성취수준을 정하고 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및 대학입시에 적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수행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충분한 연구와 범사회적 동의가 있어야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Brown, H. D. (2006).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 토론 5

##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은 대입 전형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안 상 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2014년 8월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수능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문제 풀이 중심의 점수 따기 경쟁에서 벗어나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 이 정책의 3가지 기대효과를 밝히며,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1.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의 3가지 기대효과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가집니다. 우선 수능 영어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은 고교 단계의 영어사교육비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동안 수능 영어시험은 변별력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사교육 수요를 확대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의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고교의 1인당 영어사교육비는 2010년 6.2만원에서 2013년 6.9만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절대평가 도입은 이와 같은 등급을 가르기 위한 불필요한 난이도 상승을 근본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히 시험 대비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또한 수능 영어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은 수험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현행과 같은 상대평가 체제에서 수험생은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여야 했고, 쉬우면 쉬운 대로 한 문제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수능 영어가 난이도 조정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다른 수험생의 성적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신의 실력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면 되기 때문에, 경쟁의 강도는 줄어들고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걸리는 실수에 대한 스트레스 역시 훨씬 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수능 영어시험의 절대평가 전환은 학교 영어교육이 실용영어 중심의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변별력을 위해 고교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가 출제되고,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고난이도 문제풀이 중심의 반복학습이 학교 영어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경향은 점차 완화될 것이고, 그 자리를 다양한 방식의 수업과 평가가 대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 2.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완점

그러나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능의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학을 비롯한 다른 영역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이를 위해 수학 등의 사교육이 활성화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려는 문제의식과 정책을 수학을 비롯한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른 과목 역시 수능 절대평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뽑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았지만,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부터 수능 필수가 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운영되는데, 절대평가라 해도 9등급으로 나뉩니다. 즉 변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평가 시험에서 받은 등급을 활용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만큼의 높은 변별력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학생을 촘촘하게 줄 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수능의 절대평가 된 등급과 고등학교에서 받은 학생부를 바탕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 변별을 위해 수능 영어를 보완할 대체 평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지되어 있는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나 외국어 관련 교외 수상 실적 등을 요구하거나, 영어 면접 영어 논술 등을 채택하려고 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능 영어 절대평가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각 대학별 영어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빌미로 대학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평가와 같이,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과 지식 관련 대학별 고사를 금지하기 위해 최소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3.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대입전형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수능을 중심으로 한 학생 줄 세우기 방식으로 모든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이 짜여 있는 기형적 구조이며, 이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학업 부담, 학습 의욕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영어영역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다른 과목 역시 절대평가화해 대학입시에서의 수능의 절대적 영향력을 축소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현장이 문제 풀이 중심의 수능 대비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교육 활동의 결과를 담는 학생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으로 전환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전환을 단순히 영어사교육 문제의 해법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보다 본질적으로 수능 제도와 대입 전형 전반의 개선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관련 정책에 임하며,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타 과목의 절대평가화와 대학별 고사 금지 등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